

# 에로영화로 살펴보는 1980년대의 진보와 젠더정치

—이윤종,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198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진보적 양면성』 (영화진흥위원회, 2024)

조서연\*

## 〈차례〉

1. 2024년에 돌아보는 1980년대 영화의 정치
2. 에로영화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의 갱신과 '진보적 양면성'
3. '급진과 퇴행 사이의 진동'과 대항발전주의
4. 문을 열어놓고 나가며

## 국문초록

이윤종의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은 1980년대 한국영화의 주류 장르였던 에로영화의 정치적·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영화들이었음에 주목하며, 바로 그 진보성으로 인해 퇴행성이 나타나기도 했음을 '진보적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에로영화의 군사정권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오랜 통념을 문제 삼으며 1980년대 영화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다시 쓰고 있다. 예술과 통속,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진보, 지식인과 민중이라는 이분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에로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에서 멈추지 않고, 당시의 권위적인 국가와 민중이 모두 '진보'와 '발전'이라는 목적론적 철학을 시대정신으로서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착취적인 재현이 등장한 것이라는 통찰로까지 나아간다. 총 3부로 이루어진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의 1부는 에로영화가 세계영화사의 지도 속에서 버나클러 멜로드라마로 자리하고 있음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불륜 소재의 에로스릴러와 호스트·호스티스 멜로드라마에 나타난 대항발전주의를 분석한다. 2부는 민족주의 에로영화 및 에로사극에 나타난 민중민족주의의 진보적 양면성을 파고들며, 3부는 에로영화에 나타난 죽음충동의 급진성을 분석한 후 당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화 양상에 대한 영화적 진단을 검토한다. 저자의 '대항발전주의의 3부작'의 첫 번째 결과물로 기획된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은 "진보와 퇴보의 변증법"이 1980년대의 한국영화와 당대의 발전주의·진보주의를 관통하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한국영화사 연구의 젠더정치적 갱신을 꾀하는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 도쿄대학 특임준교수

## 1. 2024년에 돌아보는 1980년대 영화의 정치

한국인들에게 있어 2024년 겨울은 1980년대의 폭력과 저항의 경험이 갑자기, 그리고 강렬하게 현재를 찾아온 계절로 기억될 듯하다. 한 번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그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또 한 번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5분의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느닷없는 계엄군의 출동과 긴박했던 계엄 해제, 곧바로 뒤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19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렸고, 이 감각은 작가 한강의 글과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인용한 2차 탄핵소추안 제안설명문의 형태로 이내 공식화되었다. 이처럼 2024년 계엄군의 총구를 1980년의 그날에 비추어 보는 하나의 큰 서사가 금세 구성되고 자연스럽게 승인된 데 비해, 그 총구에 맞서 광장을 가득 채운 이들의 면면에 대한 언설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역동적인 국면을 겹겹이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그 해석의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연결·확장되며 무엇을 만들어 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가령 2008년의 광장에 나온 여성 청소년들을 ‘촛불소녀’라 부르며 기특해하던 남성·민중화 세대 시점의 타자화가 ‘K팝 아이돌 응원봉’이라는 기호로 주목받고 있는 2024년의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통하지는 않으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윤종의 저서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에 대한 서평을 2024년의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이 저서가 마침 2024년에 발간된<sup>1)</sup> 1980년대 영화에 대한 연구서라는 단순한 공통점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연구가 1980년대의 방화, 즉 ‘국산영화를 폄훼하는 오랜 통념의 기본 구도였던 ‘에로’와 ‘민중’의 이분법이 지닌 모순을 지적하고,

1) 이 책은 저자가 2012년 9월에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 캠퍼스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Yun-Jong Lee, "Cinema of Retreat: Examining South Korean Erotic Films of the 1980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12.)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2023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50주년 기념 총서로 선정되어 2024년 4월에 출판되었다.

그 바탕에 놓인 “남성주의적 엘리트주의의 이중적 민중관”(29면)을 비판하며, 1980년대 에로방화가 지닌 정치적·문화적 진보성을 조망하는 지도를 페미니스트 연구의 관점에서 새로이 그려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자는 1980년대 에로방화가 3S정책의 산물로서 한국영화사를 퇴보시킨 부끄러운 흐름이라는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에로방화는 “정치적·문화적 진보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진보적인 영화들’(11면)이자 바로 그 특성으로 인해 진보성을 와해시키기도 한 ‘진보적 양면성’을 지닌 영화들이라고 규정한다. 이어 저자는 에로방화가 198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주류를 차지한 것은 군부정권의 문화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객과 대중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많은 1980년대 한국의 성인관객들이 지속적으로 개봉관을 찾도록 하는 동력”(406면)은 바로 에로방화가 지닌 진보적 양면성이라는 ‘은밀한 매력’이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지닌 관객들을 매료시킨 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그동안 오명에 가려 있던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복권하는 작업이거나, “정책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는 우매한 대중”(43면)이라 여겨진 관객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시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실제로 이 책은 “에로방화를 3S정책의 산물로만 보는 것은 영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와 예술을 지향했던 당대 영화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러한 바람을 찾아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조차 무시하는 처사”(417면)라는 주장을 시종 거듭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의 학술적 기획은 그 정도의 소박한 전복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연구는 에로방화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구성해 온 진보주의적 관점과 그 저항의 대상이었던 군사정권의 발전주의가 목적론적 철학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면서, 에로방화를 1980년대의 현실에 대한 ‘대항발전주의’적 성격을 지닌 영화들로서 새로이 파악한다. 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에로방화가 ‘진보성’이 아닌 ‘진보적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 역시 예의 역사주의와 진보주의가 지닌 사회진화론적 관점이

라는 시대정신을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논증해 낸다. 이는 예술과 통속,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진보, 지식인과 여성화된 민중이라는 이분법이 만들어 내는 난국을 넘어서려는 시도이자, 마리아 미즈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진보와 퇴보의 변증법”이 1980년대의 한국영화와 당대의 발전주의, 진보주의를 관통하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한국영화사 연구의 젠더정치적 갱신을 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서문의 이론적 검토 및 맺음말의 현재적 전망 사이 총 3부의 본론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각 부는 1980년대의 다양한 에로영화 텍스트가 각기 표현하는 대항발전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그 재현 전략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 1부는 에로영화가 세계영화사의 지도 속에서 버나클러(vernacular) 멜로드라마로 자리하고 있음을 살핀 후, 이를 불륜 소재의 에로스릴러와(<애마부인>,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호스트-호스티스 멜로드라마(<엑스>, <티켓>)로 나누어 분석한다. 2부는 민족주의 에로영화(<무릎과 무릎 사이>, <깊고 푸른 밤>) 및 에로사극(<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 <씨받이>)에 나타난 민중민족주의의 진보적 양면성을 파고든다. 이어 3부는 영화 <변강쇠>에 나타난 죽음충동의 급진성에 대한 분석을 지나, 에로영화 시대의 끝자락에 자리한 <물의 나라>와 <불의 나라>가 그려낸 당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화 양상에 대한 영화적 진단을 검토한다. 이 서평은 그와 같은 책의 구성 전체를 관통하는 연구의 목적과 관점을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 흥미로운 지도의 곳곳을 나름대로 뛰어다녀 보려 한다.

## 2. 에로영화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의 갱신과 ‘진보적 양면성’

이 책은 1980년대 한국영화의 주류 장르를 가리킬 때 흔히 쓰이는 용어

인 ‘에로영화가 아닌 ‘에로방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며 시작한다. 1980년대 당시의 ‘에로영화’는 극장용 에로티시즘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함의도 많이 변했을뿐더러, 영화가 유통되는 매체 환경도 상당히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이제는 쓰이지 않는 ‘방화’라는 역사적 용어와 현재에도 쓰이는 말인 ‘에로’를 결합하여, 1980년대의 주류 영화에 대한 영화사적 접근과 영화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검토를 함께 시도한다.

이 책의 연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에로방화가 대항발전주의라는 정치적 진보성을 지향한 영화들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 둘째는 그 진보성이 영화 안에서 구현되면서 만들어지는 퇴행성을 ‘진보적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는 것, 셋째는 그 진보적 양면성이 에로방화 안에 미묘하고 은밀하게 숨겨진 매력으로 작용하여 한국과 세계의 관객을 매료시킨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환경, 당대 관객의 욕망과 감정구조, 한국영화(사)를 둘러싼 ‘세계영화(사)’의 컨텍스트와 한국영화의 지역적 고유성 등을 아우르는 분석으로 구체화된다.

그러한 분석에 앞서 저자는 영화의 에로티시즘 일반에 대한 고전적인 페미니스트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멜로드라마·공포영화·포르노그래피를 ‘신체장르(body genre)’로 개념화한 린다 윌리엄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영화가 여성의 신체를 쾌락의 매개로 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영화들이 “바로 여성의 신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낮은 위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성차별주의적 편견과 현실”(104-105면)을 문제 삼을 것을 요구하며, 신체장르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문화적 형태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경유하여 에로방화 또한 신체장르의 하나로서 1980년대의 감정구조라는 “문제 해결의 문화적 형태로 기능하며 산업화와 자본

주의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도덕성 파괴를 문제화”(118면)하는 영화들로 불 것을 제안한다. 에로방화에 대한 기존의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저자가 문제 삼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로라 멀비의 ‘시각적 쾌락’ 연구가 지닌 젠더 본질주의를 해당 연구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멀비의 선구적인 연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페미니스트 영화연구는 지금까지 다수 제출되어 왔지만, 에로방화의 신호탄이 되었던 영화 <애마부인>에 대한 중년 여성 관객들의 큰 호응을 그 근거로 기입하는 대목(109면)은 이 저서를 통해 새로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저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층 더 주목되어야 할 측면은, 에로방화에 대한 기존의 비판에 깔린 젠더 본질주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에로방화의 ‘진보적 양면성’의 극단 중 하나인 젠더정치적 퇴행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저자의 통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파악하는 에로방화의 핵심적인 특징인 ‘진보적 양면성’이란 무엇인가? 에로방화는 “당대 신군부 정권하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사상과 운동이었던 민중주의 및 페미니즘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만큼 진보적이지만 두 운동의 가장 약한 고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모순적이고 이중적”(26-27면)이기도 한데, 저자는 바로 이 모순과 이중성을 에로방화의 대항발전주의가 지닌 진보적 양면성이라고 규정한다.

에로방화가 지닌 진보적 양면성은 특히 젠더정치적 차원에서 “가장 어둡고 극단적인 난점들”(419면)을 형성한다. 에로방화의 퇴행성은 여성의 신체를 불거리로 삼는다는 점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여성 개인의 신체쯤은 도구로 사유되거나 취급되어도 된다는 대항발전주의적 영화들의 문제적인 태도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행성은 에로방화 속 섹스 장면들의 구체적인 양상에서도 익히 드러난다. 저자가 ‘진보적 양면성’ 개념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언급하듯이, 에로방화의 거의 모든 섹스 장면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간에서 공간으로 변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성적 쾌락은 남성에 의해

일깨워져야만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진다. 저자는 이를 “민중을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 보고 싶어 하면서도 단순한 ‘피지배자나 ‘우매한 군중으로 보는 남성주의적 엘리트주의의 이중적 민중관”(29면)의 맥락 속에 놓으며 한층 더 본격적으로 문제화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에로영화 중에서도 작품성이 더 떨어진다고 여겨진 ‘복수극 계열의 영화들보다 오히려 영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민족주의 에로영화’나 ‘에로사극’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지적은 민중민족의 수난사를 여성 인물의 성적 수난사로 표현하는 수많은 에로영화에 도사린 남성중심성, 즉 “한 여성의 신체를 국체(national body)와 민족(nation)/민족국가(nation state)의 총체로 동일시하며 전자와 후자 모두를 성애화하는 남성중심적 사유”(237면)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저자는 이러한 여성 신체의 민족적 알레고리가 단지 한국의 ‘영화’에서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미군의 점령을 맞닥뜨린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남성 작가에게서도, 20세기 초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근대 중국 남성 지식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확장적으로 포착한다. 이는 정치적·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족주의가 가부장적 민족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이 민족주의와 에로티시즘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통찰을 낳는 한편, “에로영화가 3S정책의 부산물이 아니라 1980년대 민중민족주의 문화운동의 조류 중 하나”(288면)였음을 밝히는 연구 전체의 지향과도 연결되고 있다.

### 3. ‘급진과 퇴행 사이의 진동’과 대항발전주의

페미니스트 관점의 한국영화사 연구서로서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은 에로영화에 드러난 남성중심적 퇴행성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만 머무

르지 않으며, 오히려 에로방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가치평가로 나아간다. 저자가 ‘퇴행성’이 아닌 ‘양면성’을 연구의 키워드로 내세운 것은 1980년대의 에로방화에 나타나는 재현 전략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진과 퇴행의 양극단을 진동”(22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은 바로 그 급진성을 담지한 대항발전주의로부터 발산된다. 이 연구는 에로방화의 ‘급진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사상적 토대로 민중(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을 들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대중이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진 발전주의의 이면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느꼈는지를 뒤집어 보여주는 바다. 이 대중은 물론, 에로방화를 1980년대 주류 영화의 지배적인 장르로 올려놓은 바로 그 관객들이기도 하다. “에로방화는 1980년대의 영화적 현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국의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동 속에서 야기되는 대중의 욕망과 불안, 갈등 등의 정동을 반영하여 그것을 영화에 녹여내고 반영한 문화사적 사건”(139면)이라는 이 저서의 규정은 그러한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책의 1부는 ‘버나쿨러 멜로드라마로서의 에로방화들을 분석한다. 영화학자 미리엄 헨슨은 “영화가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매체이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공통적이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근현대성’을 양가적으로 반영”(129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버나쿨러 모더니즘’이라 불렀다. 이윤종은 현대성에 대한 대중매체의 감각적 대응이 지역어(vernacular)로서 나타난다는 헨슨의 아이디어를 에로방화에 적용하여, 그 하위 장르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멜로드라마 영화들을 분석한다.

그 분석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잠시, ‘버나쿨러 멜로드라마로서의 에로방화에 대한 저자의 주목이 세계영화라는 장 속에서 한국의 ‘방화’를 연구하는 이 책의 방식과도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짚어두고 싶다. 우선 저자는 에로방화와 비슷한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나타난 에로틱한 영화들의 경향과 그 영화사적·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한편

1980년대 이전 한국영화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흐름을 일별함으로써, 1980년대 에로영화에서 “한국적 에로티시즘이 영화 속에 토착화되는 방식과 과정 속에 한국적 특수성이 스며들어 있음”(131면)을 발견하고 있다. 에로영화의 ‘진보적 양면상’에 대한 이 연구의 주목이 지닌 의의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더욱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서평의 앞 장에서 언급했던 민족주의 에로영화 및 에로사극에 대한 저자의 비판 또한 트랜스내셔널한 시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민족주의 에로영화의 퇴행성이 동아시아의 남성 지식인들이 공유해 온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는 분석도 그러하지만, 소위 세계영화라는 중심에 ‘진출한, 혹은 중심으로부터 ‘발견된’ 남성 작가주의 감독들의 ‘예술작’ 영화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진보성과 셀프-오리엔탈리즘이라는 퇴행성 사이를 에로티시즘이라는 형태로 진동하고 있다는 통찰은 이 저서의 빛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국영화의 유럽/세계 진출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근래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진보적 양면상’과 매력의 정체는 이를 1980년대 에로영화라는 큰 지도 속에 놓아 살핀 이 저서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버나클러 멜로드라마’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 책은 최초의 에로영화인 <애마부인>(1982)과 이듬해에 나온 에로스릴러 영화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1983)를 첫 번째 분석 대상으로 호출한다. 저자는 1970년대 호스티스 영화의 하층계급 여성 주인공들을 중상층 가정주부로 대체한 이 영화들을 마리아 미즈가 말한 여성의 “가정주부화”의 한국적 양상을 보여주는 영화로 의미화하면서, 피터 브룩스 등이 말한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차용하여 “부패한 남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여성의 복수극으로서 대항발전주의적 면모를 지녔다고 분석하고 있다(135면). <애마부인>의 주된 관객이 중년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저자는 <애마부인>의 “여성친화적 연하남 판타지 및 남성친화적 에로-그로-넌센스적 성인영화의 특성과 결합”(157면)하여 다양

한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고 진단하는 동시에, 남편들의 성적·윤리적 일탈과 편법을 통한 부의 축적이 에로방화의 대항발전주의적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이 영화들은 “발전 국가가 주도한 신분 상승과 경제적 번영에 경도된 사회가 가져오는 계급 양극화와 음성적 성산업의 발달, 전 사회적 가정주부화, 가정주부가 되기 전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성애적 연애관계에 경제문제가 개입되며 생기는 갈등과 파국 등”(139면)에 주목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그 대항발전주의적 정동에 대한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며 에로방화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이다.

에로방화의 ‘진보적 양면성’과 대항발전주의가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의 관점은 1980년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호스트·호스티스물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한국영화사에서 성매매물이 “한국의 압축적·산업적·자본주의적 현대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는 장르”로 오래 기능해 왔음을 짚으면서도, 1980년대의 성산업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정부의 산업 부문의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일찍부터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보인다는 데에 주목한다(197-199면). 그에 따르면 이 시기 에로방화의 호스트·호스티스물은 “비물질노동의 현장인 성산업에서의 노동 소외와 인간적 결속의 단절, 비윤리적 착취의 회로구조”를 폭로하고 성노동자를 “우리 안의 이방인”으로 제시하는(229-231면) 대항발전주의의 정동을 담은 영화들이다. 이어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은 앞서 몇 차례 언급한 민족주의 에로방화와 에로사극에 담긴 민중민족주의의 양면성을 조명하고, 영화 <변강쇠>에서 재현된 ‘노동하지 않는 신체’에 대한 당대의 양가적 감정을 발전주의와 대항발전주의의 키워드를 통해 한 겹 한 겹 들추어낸다. 저서의 본론이 마지막으로 다루는 대상은 에로방화 시대의 끝자락이자 87년 체제 직후에 나온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개인을 통해 이러한 심성구조를 주입한 개발독재 발전국가를

고발”하는 ‘여성 복수극’으로 출발한 1980년대 초중기의 에로영화가 “물불을 가리지 않던 개인의 투쟁을 좌절시키는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와 구조를 고발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기의 ‘남성 멜로드라마’로 변전(372면)되는 사례로 분석된다.

#### 4. 문을 열어놓고 나가며

저서의 본론을 다 읽은 후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에로영화와 민중영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저자가 제기하는 의문의 내용들이 자못 흥미롭고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민중영화는 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구체적인 작품의 형태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들 영화에서도 당대 영화계의 큰 흐름이었던 에로티시즘은 혼합적으로 녹여져 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로영화의 문제점이기도 한 “여성의 성행위에 있어서의 수동성이나 희생자로서의 민중 재현은 동일하게”(52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1980년대 후반의 민중영화보다도 더 먼저 민중사상과 페미니즘의 흐름을 채택한 것이 1980년대 초중반 에로영화를 만든 주류 영화인들이었다는 점을 그 지적에 뒤이어 덧붙인다. 에로영화와 초기 민중영화의 이러한 상동성, ‘급진성과 퇴행성 사이를 진동하는’ 진보적 양면성은 “1980년대 한국 대중/민중의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것이다.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의 서문은 또한, “21세기 한국영화계에서는 이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에로티시즘이라는 영역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학문적으로 고찰”(25면)하기 위해 에로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며 시작한다. 맺음말의 소재목이 “진보와 발전, 그리고 비(非)성에 시대의 영화적 에로티시즘”인 것은 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저자 자신의 답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때 현재의 한국 사회 및 한국영화의 양상을 설명

하는 (무성애와는 다른) '비성애'라는 키워드는, 대체로 설득력이 있는 중에도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비성애'는 저서에서 언급되듯 최근 젊은 세대 공통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이 젠더화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한국뿐 아니라 소위 2세대로 호명될 수 있는 인구집단이 있는 문화권 전반의 세계적 경향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이 에로방화의 좌표를 찾는 과정에서 그러했듯이 광범위한 보편성과 '버내쿨러'적 측면 양자에서 살펴볼 만한 대상이 아닌가 한다. 또한, 주류 영화에서 에로티시즘이 사라지는 경향 자체는 명백하지만, 이것이 젊은 세대의 비성애와 곧장 닿아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에도 의문이 든다. 에로틱한 대중·상업예술의 향유는 웹툰, 게임, 웹소설 등에서 (역시 젠더화된 양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저서의 서문에서 '에로방화'라는 용어를 제안할 때 고려된 것처럼 영화 향유의 매체적 조건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록 비성애를 언급한 부분이 저서 전체의 방대한 분량 속에서는 물론이고 맺음말 안에서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는 하나, 결론의 소재목에 드러난 키워드이니만큼 서평의 지면을 빌려 몇 가지 선부른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그보다 맺음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책이 속한 더 큰 기획, 향후의 연구계획을 예고하는 부분인 듯하다. 저자는 이 책이 '대항발전주의 3부작의 첫 번째 책으로 기획된 것임을 마지막에 밝힌다. 이어지는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대항발전주의가 한국영화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들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차용하며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과 "대항발전주의적 대안으로서의 영화적 생태주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영화 속에서의 발전과 진보의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화되고 이론화된 접근"(423면)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에로방화와 3S정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작한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처럼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고 있다. 이는 저자 자신의 계획인

동시에 이 저서의 “은밀한 매력”과 전망에 각자의 방식으로 감응할 동료들을 부르는 손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새로운 지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겹치며 그려지기를 기대해 본다.